‘DPCW 10조 38항’ 국제법 제정에 한뜻 모은 ‘평화축제’

18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에서 평화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 37억 하나 된 세계 여성, IWPG ’ 라는 주제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 IPYG의 힘찬 평화의 외침 ’ 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 DPCW 10조 38항 ’ 을 외치고 있다.

18일에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 본행사가 열렸으며 이는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26개 도시와 해외 97개 도시에 생방송으로 방영돼 수십만 참가자들이 ‘전쟁 종식 · 세계평화’를 한마음으로 외쳤다. ‘지구촌 하나의 울림’이란 주제의 거대한 평화축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HWPL 12지부 회원들이 각기 다른 평화의 주제를 다양한 퍼포먼스로 표현해낸 평화퍼레이드는 행사의 백미로 꼽혔다.

이만희 HWPL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HWPL 평화의 사자들은 지구촌을 쉬지 않고 다니며 DPCW 10조 38항이 전쟁종식과 평화를 이룰 답임을 알려왔다” 며 “각국 전 · 현직 대통령도, 대법원장들도, 대학 총장들도, 교육부 장관들도 전쟁종식 평화를 지지했고, DPCW 10조 38항을 지지했으며, HWPL과 협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각국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각 단체장들께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해주시고 DPCW를 지지해주심과 ‘We are One’(우리는 하나)을 외치며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각국의 대통령들께 나라와 국민이 원하는 지구촌 전쟁종식과 평화를 이룰 답인 DPCW 10조 38항의 법제화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이만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가 18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의 북'을 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 인천 라마다송도에서는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조지아, 필리핀 등 30개국 100여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세계평화언론네트워크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는 언론’ 과 ‘DPCW를 통한 조지아와 세계평화’ ‘평화를 위한 언론인의 사명’ 등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제4회 지구촌 종교지도자 콘퍼런스가 열려 ‘종교분쟁의 아픔과 해결을 위한 촉구’ ‘종교의 자유와 평화시대 실현’ 등의 발제를 통해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